‘불황’ 대형나이트클럽 화려한 날은 가고…

요즘 광주는 소형클럽이 대세

옛 ‘로마나이트’ 영업중단

1만원대 ‘클럽’ 7~8곳 호황

비용축소 등 생존경쟁 치열

경기 침체와 유흥문화 다변화에 따라 광주지역 정통 나이트클럽들이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나이트클럽 업주들은 마케팅을 줄이고 연예인 초청행사를 축소하는 등 비용절감에 나섰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20대 초반이 즐겨 찾던 옛 로마나이트가 지난 7월 폐업 신청을 했다. 정통 나이트클럽에서 올 3월 ‘클럽 박스’로 리모델링해 재개장했던 이곳은 4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충장로 등지에 성업중인 ‘클럽’처럼 젊은이를 위한 공간으로 변신했지만 손님 유치에 실패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광주에는 ‘자유 나이트클럽’과 ‘상무 나이트클럽’, ‘돔 나이트클럽’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 업소도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출을 줄인 시민들이 나이트클럽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유흥업소와 밀접한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성수기와 비교하면 현재 나이트클럽의 주류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며 “적자 상태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주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연예인 초청 행사를 없애고, 홍보포스터 부착 등을 줄였지만 ‘화려함’이 먼저인 나이트클럽 분위기상 눈에 띄게 긴축경영을 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이트클럽을 위협(?)하는 업소들의 출현도 생존 위기감을 더한다. 1만원 내외의 입장료만 내면 밤새 춤출 수 있는 이른바 ‘클럽’은 수년 새 충장로와 ‘구시청 사거리’ 사이에 7~8곳이나 문을 열었다. ‘팬픽’ 등 주말이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클럽은 주로 20대 초반의 고객들이 드나들며 같은 연령대가 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이트클럽’을 대신하는 유흥문화가 됐다.

막걸리를 마시며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반(半) 클럽·반 주점’식의 업소는 90년대 히트가요를 들으며 싼값에 분위기를 돋울 수 있어 30대 이상 손님을 유혹하고 있다. 나이트클럽 문화의 핵심이었던 ‘부킹’이 도심의 대규모 호프집이나 포장마차에서 가능해 진 것도 손님 이탈의 원인이다.

여기에 중과세 대상인 나이트클럽이 새 정부 들어 ‘세금폭탄’을 맞으면서 경영악화가 심화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나이트클럽 업주는 “정부가 기존의 관례를 벗어난 세금 정책을 벌이면서 수익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매출은 줄어드는 데 지출은 갈수록 커져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가로수 은행 수확 2일 광주시 북구청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전남대 정문과 북구청 사이 도로변에서 은행을 따고 있다. 북구청은 은행열매로 인한 심한 악취와 은행을 따려는 시민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은행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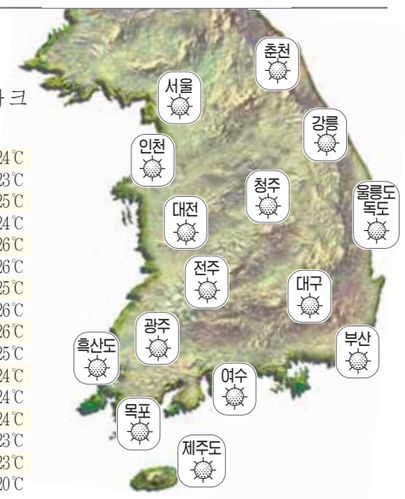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29분 해짐 18시 14분 | 달뜸 04시 29분 달짐 17시 00분

아침에 쌀쌀

대부분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크겠다.

광 주	맑음	13/24℃
목 포	맑음	14/23℃
여 수	맑음	15/25℃
나 주	맑음	10/24℃
완 도	맑음	15/26℃
구 례	맑음	9/26℃
강 진	맑음	12/25℃
해 남	맑음	12/26℃
장 흥	맑음	12/26℃
순 천	맑음	8/25℃
영 광	맑음	11/24℃
진 도	맑음	14/24℃
전 주	맑음	10/24℃
군 산	맑음	10/23℃
남 원	맑음	7/23℃
흑산도	맑음	17/2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5m
먼바다	북~북동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먼바다	북~북동	1.5~3.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5~2.5m

	밀물	썰물
목포	00:46 13:03	06:16 18:28
여수	07:58 20:11	01:43 13:5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날 씨						
최저/최고	12/26	13/25	16/24	18/26	18/25	17/25

우리아이가 ‘세균공기’ 마신다고?

광주 어린이집·대형마트 기준치 초과 12곳 적발

광주 어린이집 10곳과 2곳의 대형마트에서 실내 공기에 있는 세균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위생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광주·전남 등 전국 2576개소 다중이용시설과 2012년 신축 공동주택 52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광주에서는 어린이집 10곳, 대형 마트 2곳 등 모두 12곳이 기준치를 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광주지역 S어린이집의 경우 총부유세균 수치가 1521CFU/㎥로, 기준치(800CFU/㎥)의 2배에 달했다. 또 O어린이집도 기준치를 넘어선 1346 CFU/㎥의 총부유세균 수치로 적발됐다. ‘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는 남구 L점포와 서구 E 점포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형 마트 2곳에서 각각 기준치(100㎍/㎥ 이하)를 넘어선 119㎍/㎥, 138㎍/㎥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벨트를 꽉 졸라매면 식도암 위험 커진다

벨트를 졸라매면 식도암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 심혈관·의과학연구소의 케네스 매콜 박사는 벨트를 졸라매면 위산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오는 위식도역류가 잦아지면서 식도암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의 연구팀은 특수 제작된 측정장치를 식사 전과 후에 삼키게 하고 벨트를 착용했을 때와 풀어놓았을 때 위산의 움직임을 측정했다.

그 결과 벨트를 팽팽하게 착용했을 때 위식도역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체중일수록 그러한 위험은 더욱 높았다.

/연합뉴스

“운암동 롯데마트 출점 철회하라”

광주 중소상인 ‘북구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 촉구

광주지역 중소상인들이 건축허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롯데마트 광주 북구 운암동 지점의 출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북구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2일 운암동 롯데슈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 측에 골목상권을 무너뜨리고 교통체증을 불러오는 입점 계획을 철회할 것과 사법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불허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 북구는 앞서 공익을 이유로 운암동 롯데슈퍼 자리에 대형마트를 재건축하려는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신청자측은 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오는 10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대책위는 “롯데는 광주에 대형마트 4곳, 기업형 슈퍼마켓 14곳, 상품공급점 3곳 모두 21곳에 영업하며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